

중국산 플라스틱 가방 반덤핑 규제

EU, 중국산에 5년간 반덤핑관세 15.2% 부과 ... 타이제품도 14.3%

유럽연합(EU)이 중국산 플라스틱 가방에 15.2%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EU 인터넷뉴스인 EU 옵서버가 7월10일 보도했다.

EU는 또 타이산 플라스틱 가방에 대해서도 14.3%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.

앞서 집행위는 여름 중국, 타이 등 아시아산 플라스틱 가방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.

EU는 2006년 들어 중국산 가죽신발과 컬러 TV에도 반덤핑관세를 부과기로 결정한 바 있다.

따라서 2005년 중국산 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놓고 벌여졌던 EU와 중국간 무역분쟁이 2006년 신발, 컬러TV, 가방 등으로 확산되며 또다시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.

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는 프랑스 등 가방 제조기업들의 제소에 따른 것이나 영국 등의 가방 소매업자들은 중국산 가방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로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.

중국의 플라스틱 가방 수출액은 연간 2억3500만유로(3억달러)에 달하고 있다. (브뤼셀=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)
<저작권재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7/12>